



물가불안과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%대를 기록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6.6%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
-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5.3%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.6%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.
 -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5.2% 상승하고, 생선·채소류·과실류 등 신선식품지수도 13.8%나 급등함.
 - 공업제품은 석유류 15.2%, 가공식품 8.0%, 내구재 7.1% 상승했으며, 서비스 부문은 집세 4.4%, 개인서비스 3.4%, 공공서비스 1.4% 상승함.
- 8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동기대비 6.6% 상승하였으며,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물가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.
 - 농림수산물 물가가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12.5% 상승하였고, 공산품 물가도 원자재가격 상승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8.0% 상승함.

■ 한은은 물가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외 위험요인 증가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9월 8일 기준금리를 동결함.

- 한은은 농산물가격 안정과 기저효과 등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,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악화로 당분간 물가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, 1~8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.5%로 나타나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4%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기부진,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,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 증가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에 따라 기준금리를 3.25%로 동결하였으며, 이는 한은이 물가불안 등의 현안과제보다 경기둔화 우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함.

(통화정책방향 등, 한은, 9/8)